

2023.04.18(화)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2023-04-18 오전 4:07

수정한 날짜:2023-04-18 오전 5:21

2023.04.18(화) 증권사리포트

원익IPS
기술 변화에 대응이 필요
[\[출처\] NH투자증권 도현우 애널리스트](#)

업황 회복으로 인해 2024년 투자 증가 예상

원익IPS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과 고객사의 투자 기조 회복으로 인해 실적 추정치를 상향. 2021년 180K, 2022년 110K를 기록한 업계의 NAND 신규 Capa 투자는 2023년 50K로 감소할 전망. 업황 회복과 함께 2024년에는 다시 120K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기존 전망 2024년 85K, 2025년130K. 신규 전망 2024년 120K, 2025년 170K)
다만 원익IPS가 제조하는 PECVD, ALD 등 장비는 최근 기술 변화로 인해 글로벌 경쟁사와의 경쟁 강도가 증가 중. 이로 인해 동종 업계 내 성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의견 Hold는 유지
1Q23 실적은 매출액 2,502억원(-22% q-q), 영업이익 300억원(+14% q-q), 순이익 284억원(흑전 q-q)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로 인한 삼성전자 등 고객사의 투자 축소 등에 영향. 삼성전자는 현재 P2 보완 투자 및 P3 신규 투자를 진행 중. 업황 둔화로 인해 메모리 관련 장비 투자는 전년 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

3D NAND의 기술 변화 진행 중

기술적 어려움 증가로 인해 3D NAND가 적층 수를 늘리는 것보다 PUC(Peri Under Cell) 등 구조 변화 및 피처 스케일링이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집적도가 높아지는 흐름은 적층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원익IPS에게부정적. 삼성전자는 176단 3D NAND 양산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생산 비중이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음
최근 3D NAND 기술 개발 방향은 레이어를 늘리는 것보다 슬릿 사이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필러 간격을 줄여 슬릿 당 필러 수를 늘리고, 필러의CD(Critical Dimension)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동사는 최근까지 성장을 주도한 적층 관련 장비 뒤를 잇는 차세대 장비 개발이 필요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1,011	914	1,295	1,474
증감률	-17.9	-9.7	41.8	13.8
영업이익	97.6	96.4	162.1	206.5
증감률	-40.6	-1.2	68.3	27.4
영업이익률	9.6	10.5	12.5	14.0
(지배지분)순이익	89.4	90.2	162.8	206.9
EPS	1,822	1,839	3,317	4,215
증감률	-38.4	0.9	80.4	27.1
PER	13.6	17.7	9.8	7.7
PBR	1.4	1.4	1.3	1.1
EV/EBITDA	7.7	8.2	4.8	3.3
ROE	10.7	9.1	13.7	15.2
부채비율	29.0	23.8	21.9	19.4
순차입금	-155.4	-408.8	-580.0	-751.2

단위: 십억원, %, 원, 배



효성티앤씨

올해 1분기 실적 추정치, 재차 상향 조정

[\[출처\] IBK투자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높아진 시장 기대치 크게 상회 전망

효성티앤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02억원으로 최근 급격히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판가/원가/물량이 모두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 섬유부문 영업이익은 39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천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나일론/폴리에스터부문이 부진한 실적을 지속하고 있으나, 주력 제품인 스판덱스의 업황 반등에 기인한다. 스판덱스는 판가가 상승한 가운데,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요 개선 및 Ningxia 플랜트 증설분 가동으로 판매 물량이 전 분기 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외 플랜트 가동률 개선으로 인한 고정비 절감 효과가 추가되었으며, 운송비 하락 및 저가 BDO 투입으로 인한 원가 개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기타부문 영업이익은 204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5.3% 증가할 전망이다. 비수기 효과 제거로 무역부문의 판가가 개선되었고, 베트남 타이어보강재부문도 전 분기 대비 판매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실적 또한 세계 패션업체들의 성수기를 대비한 스판덱스 재고 축적 확대, 중국 Ningxia 스판덱스 플랜트의 온기 가동/인도 법인의 증설분 본격 상업화로 인한 물량 측면의 증가, 타이어코드 성수기 효과 및 운송비 등 수출비용의 추가적인 하락 등으로 증익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BDO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제조원가 개선 전망

스판덱스의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BDO 가격이 재차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PTMEG는 견고한 업황을 지속하고 있으나, 타 유도품인 PBT, NMP 등의 수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3~4월 24만톤 규모의 신규 중국 플랜트들의 가동으로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사 2~3분기 스판덱스 제조원가 감소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위:십억원,배)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5,162	8,596	8,883	8,917	9,437
영업이익	267	1,424	124	409	645
세전이익	224	1,404	31	365	602
지배주주순이익	137	770	12	218	359
EPS(원)	31,610	178,008	2,723	50,317	82,905
증가율(%)	47.0	463.1	-98.5	1,747.6	64.8
영업이익률(%)	5.2	16.6	1.4	4.6	6.8
순이익률(%)	3.3	11.7	0.2	3.2	5.0
ROE(%)	25.1	76.2	0.9	16.6	23.2
PER	6.7	2.9	128.5	8.2	5.0
PBR	1.5	1.6	1.2	1.3	1.1
EV/EBITDA	4.8	2.3	9.2	6.1	4.1

그림 1. 효성티앤씨 해외 스판덱스 법인 매출액 추이

자료: 효성티앤씨, IBK투자증권

자료: 효성티앤씨, IBK투자증권

자료: 효성티앤씨, IBK투자증권

자료: ICIS, IBK투자증권



지노믹트리

얼리텍C 실손보험 적용 성장 기반 확보, 게다가 미국이 원하는 기술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신의료기술 유예 제도 통과, 국내 성장 본격화

지노믹트리는 지난 4월 13일 대장암 조기진단 검사 제품 얼리텍C에 대해 '한국보건 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국내 병원 내 의료진들은 제품 코드 발급을 통해 진단 목적으로 얼리텍C를 판매 할 수 있게 됐다. 지노믹트리는 이미 1차 의료기관 등 약 1,300개의 공급처를 통해 잠재 검진대상 200만명 이상을 확보 해 놓은 상태다. 이번 제도 통과를 통해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국내 시장의 본격적인 침투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올해 실손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은 건강보험 등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보수적으로 추정해 도 국내에서만 약 1,450억원 이상의 매출액 창출이 가능하다. 가파른 수요 확대로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지노믹트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다.

얼리텍C는 미국이 원하는 기술, 가치 재평가 필요

최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25년 이내에 암 사망률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미국 복지부, 국립보건원(NIH), 국립암연구소(NCI) 등이 참여한 이번 초안은 '암 예방', '암 조기검진',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다. 지노믹트리의 얼리텍C(대장암 조기진단)가 크게 수혜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얼리텍C는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약 1만명 대상의 FDA 허가용 대규모 확증임상을 준비 중이다. 경쟁 제품인 이그젝트 사이언시스(EXAD)사의 콜로가드(ColoGuard)와 비교했을 때 얼리텍C는 1)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고, 2)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3) 활용도까지 높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장암 조기진단이 표준 진단법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콜로가드 대비 이점을 보유한 얼리텍C는 미국이 원하는 기술이다. 얼리텍C 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올해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 확보로 주목할 시점

당장 미국 시장 진출은 올해부터 시작한다. LDT 서비스를 통해 미국 임상을 거치지 않고 얼리텍B(방광암 조기진단) 제품을 3Q23부터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LDT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Pacific Edge사의 제품보다 정확도가 월등히 높다. 따라서 출시 이후 가파른 매출액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지속적인 모멘텀이 상존해 있는 시기다.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십억원	0	0	2	2	2
영업이익	십억원	(3)	(9)	(9)	(9)	(11)
세전이익	십억원	(2)	(10)	(12)	(11)	(7)
순이익	십억원	(2)	(10)	(12)	(11)	(7)
EPS	원	(158)	(533)	(590)	(553)	(313)
증감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배	(174.4)	(44.0)	(24.8)	(24.1)	(28.1)
PBR	배	39.6	4.3	3.1	2.4	1.7
EV/EBITDA	배	0.0	0.0	0.0	0.0	0.0
ROE	%	(22.4)	(9.4)	(12.4)	(9.9)	(6.2)
BPS	원	695	5,450	4,766	5,454	5,251
DPS	원	0	0	0	0	0





SPC삼립

1Q23 Pre : 시장 기대치 부합 전망

[\[출처\] 하나증권 심은주 애널리스트](#)

1Q23 Pre: 전년 낮은 베이스+판가 인상 효과

1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7,924억원(YoY 9.3%), 153억원(YoY 12.9%)으로 추정한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한다. ① 본업(베이커리)은 전년 베이스가 낮다. '포켓몬빵' 출시 시점이 작년 3월이기 때문이다. '포켓몬빵'은 월 100억원 내외 꾸준한 매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믹스 개선과 더불어 올해 연초 일부 제품 판가 인상까지 감안시 매출액은 YoY 14.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진도 YoY 개선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② 식품 매출액은 YoY 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성장은 견조 하겠으나 원가 부담(소맥, 돈육 등)이 가중되면서 수익성 하락은 여전히 불가피 하겠다. ③ 브랜드/휴게소 매출은 전년 기저효과 및 휴게소 트래픽 회복 기인해 YoY 10.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가평 휴게소' 적자가 유의미하게 개선되면서 YoY 30억원 내외 손익 개선이 예상된다. 연간으로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④ GFS 매출액은 저수익 거래처 스크랩 및 외식 경기 둔화 영향으로 4Q22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월 신제품 출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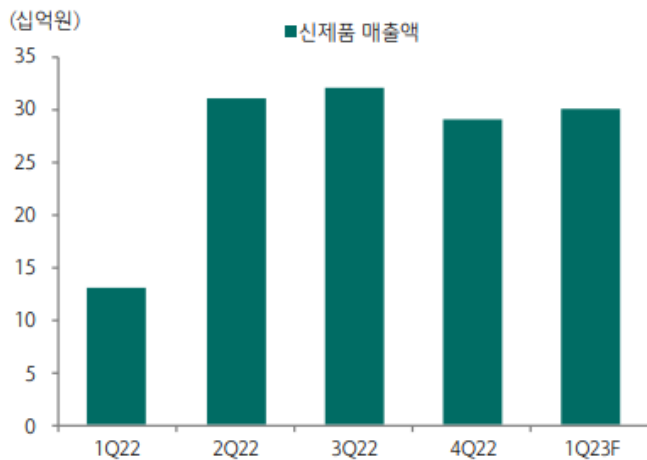
4월 초 '포켓몬빵'의 후속으로 '산리오빵'을 출시했다. '포켓몬빵'이 출시 이후 월 100억원 내외의 안정적 매출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제품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제품 시장 안착 여부에 따라 본업 실적도 상향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① 본업 판가 인상 효과, ② 휴게소 트래픽 회복, ③ 하반기 원가 부담 완화 기인해, 올해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YoY 7.3%, 1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조정으로 저가 매수 유효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8.5배에 거래 중이다. 건조한 실적 전망 감안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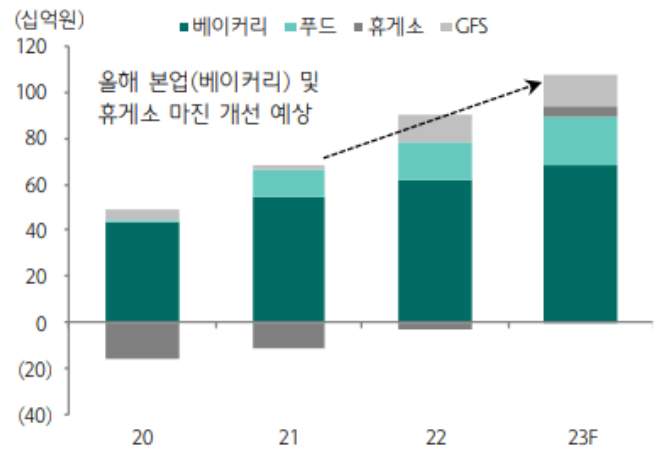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십억원	2,542.7	2,946.7	3,314.5	3,557.7	3,771.1
영업이익	십억원	51.1	66.2	89.5	101.7	116.9
세전이익	십억원	4.0	52.7	70.8	87.0	105.9
순이익	십억원	(12.5)	40.4	53.2	63.6	79.3
EPS	원	(1,444)	4,687	6,170	7,368	9,192
증감율	%	적전	흑전	31.64	19.42	24.76
PER	배	(49.86)	15.11	11.56	9.81	7.87
PBR	배	1.76	1.58	1.40	1.27	1.12
EV/EBITDA	배	8.22	7.14	6.29	5.54	4.84
ROE	%	(3.98)	12.68	14.70	15.36	16.82
BPS	원	40,958	44,671	50,938	56,709	64,304
DPS	원	1,104	1,500	1,700	1,700	1,700

그림 1. '포켓몬빵' 매출 추정



자료: 하나증권

그림 2. 사업부별 손익 전망



자료: 하나증권



신세계푸드

홀로서기가 필요한 시점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1분기 실적은 전년대비 성장

신세계푸드 1분기 실적은 지난해 1분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454억 원(전년동기대비 +6.6%), 영업이익 47억 원을(전년동기대비 +18.8%)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1분기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1) 단체급식 식수 증가 및 지난해 신규 수주한 대규모 사업장 오픈에 따른 효과와, 2) 일부 비수의 단체급식 사이트 폐쇄에 따른 마진 개선과, 3) 그룹사 사업장 가격 인상, 4) 노브랜드 적자 점포(직영점) 폐점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

1분기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영업실적을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이유는 1) 수년간 비수의 사이트 정리에 따라 시장지배력 확대가 제한되고 있고, 2) 전방 채널 업황에 따라 영업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3) 뚜렷한 성장 전략이 부재해 중장기 성장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는 그룹사 유통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 효과로 이러한 구조 때문에 ▶ 변해가는 산업환경에서 구조적인 점유율 확대 및 성장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방 채널 전략적 변화에 따라 영업실적 변동성이 크다. 당사에서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베이커리 사업부 및 식품제조 역량과 이를 활용한 노브랜드 가맹 사업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다. 다만, 이러한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제한되고, 온전한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사업환경이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그룹사에서 동사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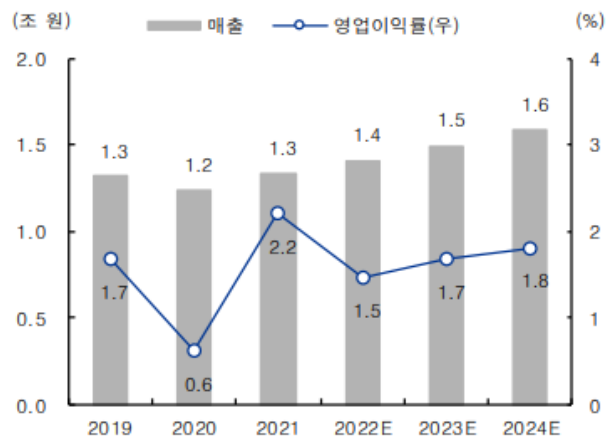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8,000원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5.8만원을 유지한다.

(단위:십억원,배)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1,329	1,411	1,495	1,588	1,698
영업이익	30	21	25	29	33
세전이익	5	-5	19	27	33
지배주주순이익	2	-5	14	20	25
EPS(원)	624	-1,390	3,709	5,283	6,410
증가율(%)	-111.0	-322.8	-366.7	42.5	21.3
영업이익률(%)	2.3	1.5	1.7	1.8	1.9
순이익률(%)	0.2	-0.4	0.9	1.3	1.5
ROE(%)	0.9	-1.9	4.8	6.6	7.5
PER	131.2	-34.6	11.9	8.4	6.9
PBR	1.1	0.6	0.6	0.5	0.5
EV/EBITDA	8.0	7.3	8.1	7.8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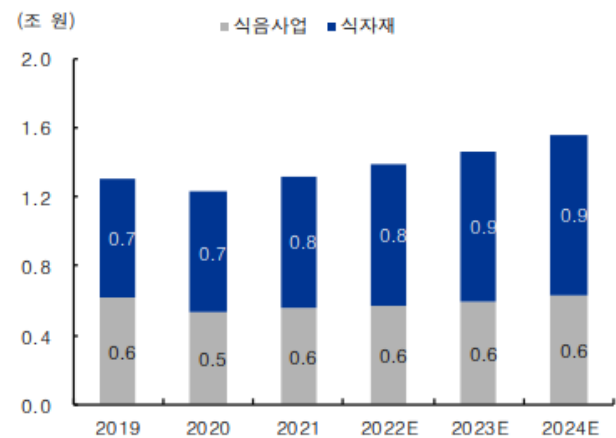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신세계푸드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신세계푸드, IBK투자증권

그림 2. 신세계푸드 주요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신세계푸드, IBK투자증권



연간 신규수주 목표 26억달러로 35% 상향

4/13 공시를 통해 연간 수주 목표를 기존 19.48억달러에서 26.34억달러(+35.2%)로 상향을 발표했다. 2022년 29.6억달러 수주를 기록한 후 1/2 발표되었던 보수적 가이드선은 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수주 가이드선 상향의 의미들을 짚어본다.

- 1) Capa 확대: 기존 보수적 가이드선은 2022년 대규모 수주에 따른 Capa 와 납기 문제가 영향을 줬다. 수주 목표 상향은 직간접적인 Capa 확대를 의미한다. 배전 변압기는 아웃소싱이 가능해 시장 호조에도 Capa 영향이 덜하다. 송전 변압기는 공정 효율화, 인력 충원 등의 간접 증설이 진행중이다. 대규모 투자는 아직 미정이다.
- 2) 긍정적 업황: 4월 중반 이례적으로 빠른 수주 전망치 상향은 2023년 현재까지의 수주와 연간 남은 기간의 수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연초 가이드선을 준비하던 2022년 하반기 대비 성장 지속성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다.
- 3) 중장기 호실적 유지의 근거: 원화 환산 수주 목표로는 3.4조원이다. 2022년 수주는 3.7조원이었다. 수주세가 지속되면 장기 실적이 3.4조원에 수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시에서는 기존 매출액 가이드선이 유지되었지만 이는 기존 수주잔고에서의 매출 인식 기준이며 수주 목표치 상향에 따른 단납기 물량 증가, 납기 속도 단축을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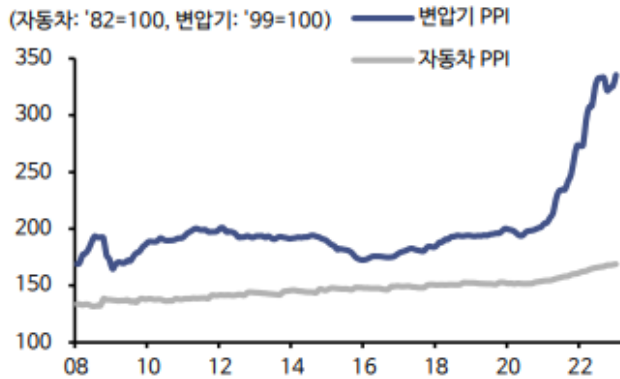
목표주가 6.2만원으로 상향, 보지 못한 시장이 온다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2,000원으로 상향한다(기존57,000원, +8.8%). 증설과 중대형 전력기기 호황의 프리미엄을 적용해 PER을 기존 대비 10% 상향했다. 전력기기는 장기적 사용, 리세일 시장의 부재, 성능 안정성의 중요도 등으로 통상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2010년 전후 중동시장이 이끈 호황 정도가 예외적 상황이었다. 최근 분위기는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대두, 각국의 신재생 투자, 전기차 시장 확대, 미-중의 제조업 이원화 등으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전력 투자 시장이 온다. 수요는 단기적이지 않으며 증설은 주가 상승의 끝이 아닌 시작일 것이다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EPS (원)	B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순차입금비율 (%)
2021	1,806.0	9.7	(33.7)	(935)	17,927	(21.3)	17.1	1.1	(5.1)	28.2
2022	2,104.5	133.0	162.5	4,508	22,820	9.4	10.7	1.9	22.1	47.0
2023F	2,675.3	210.5	143.8	3,989	26,309	9.7	6.8	1.5	16.2	38.4
2024F	3,094.9	295.5	221.9	6,156	31,965	6.3	4.8	1.2	21.1	22.1
2025F	3,423.8	356.9	273.4	7,584	39,050	5.1	3.7	1.0	21.4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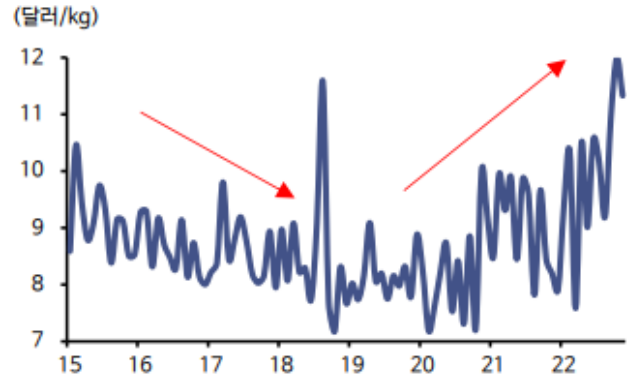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북미 변압기, 자동차 P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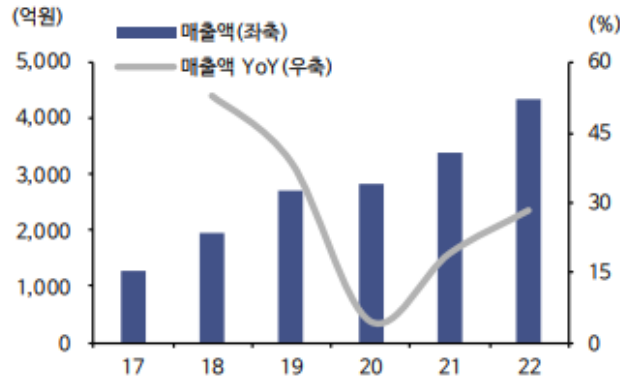
자료: BLS USA, 신한투자증권

대형변압기 수출 금액 추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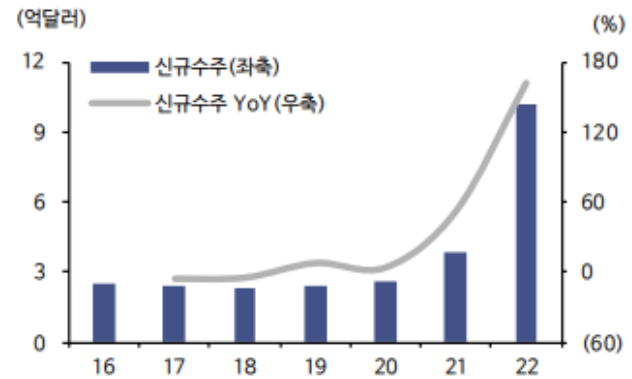
자료: Kita, 신한투자증권

현대일렉트릭 북미시장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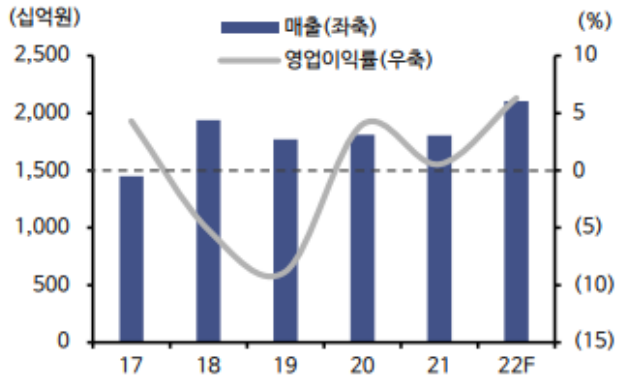
자료: 현대일렉트릭, 신한투자증권

현대일렉트릭 북미시장 신규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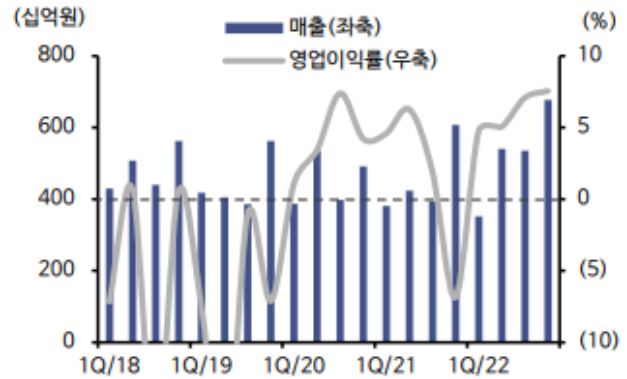
자료: 현대일렉트릭, 신한투자증권

현대일렉트릭 연간 매출,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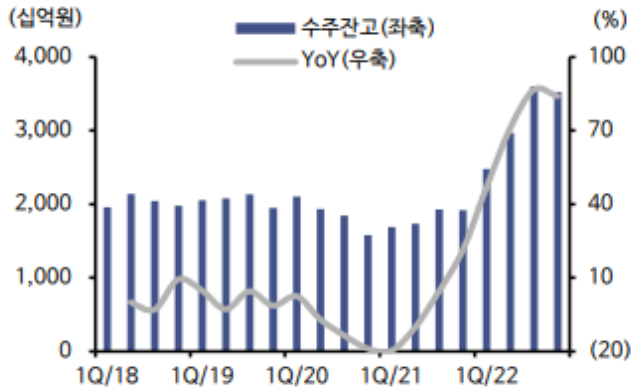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현대일렉트릭 분기 별 매출,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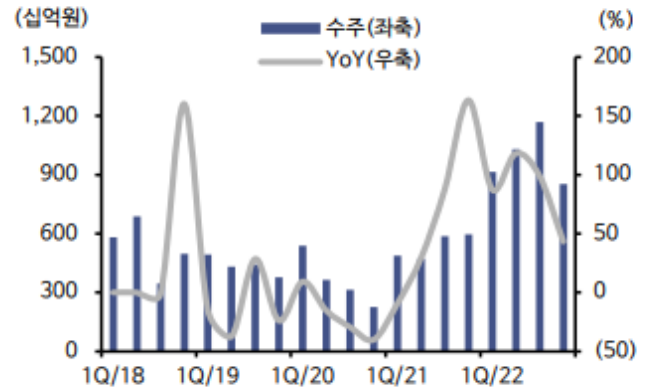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현대일렉트릭 분기 별 수주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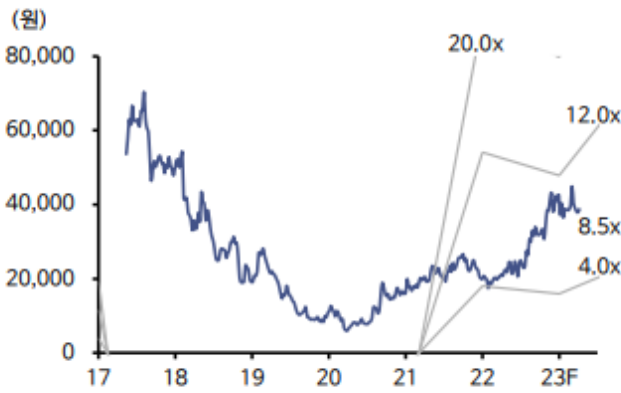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현대일렉트릭 분기 별 신규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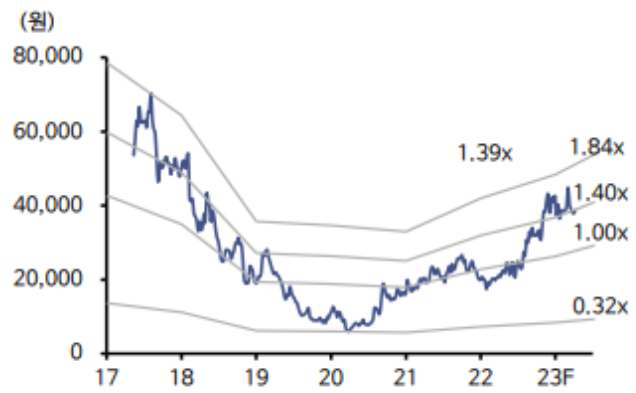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현대일렉트릭 12개월 선행 PER 밴드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추정

현대일렉트릭 12개월 선행 PBR 밴드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추정





LG이노텍

보수적 추정에도 주가 과도한 저평가

[\[출처\] NH투자증권 이규하 애널리스트](#)

부진한 상반기 판매와 비용 증가로 이익률 둔화

상반기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부진과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신형 카메라 모듈 양산에서 발생 가능한 수율 이슈까지 가정해 실적 추정치 낮추고 목표주가를 기존 45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하향. 하지만 보수적 추정에도 현재 주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해 투자이견 Buy 유지

먼저 북미 스마트폰 업체의 상반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년비로는 약 15~20%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규 스마트폰에 대규모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기대되어 대기 수요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익률 측면에서도 최근 3년간 진행했던 대규모 설비투자로 감가상각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동률이 낮은 상반기 수익성 악화 불가피. 하반기는 성수기 진입으로 인한 물량 증가, 신규 카메라 모듈 납품으로 판가 상승으로 마진 회복 기대되나 수율 이슈 생길 경우 마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

대부분 악재를 선반영한 보수적 추정에도 현재 주가 과도한 저평가

실적 측면에서는 2023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18.2% 하향한 1조17억원 (-21.2% y-y)로 전망. 상반기 스마트폰 판매 부진과 연간 감가상각비 상승 영향, 하반기 수율 이슈를 가정해 보수적으로 마진을 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1)보수적인 가정에도 2023년 주당순이익 기준 PER 9.8배로 역사적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2)하반기 북미 스마트폰 업체의 판매호조세가 기대되어 실적 상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미 악재가 대부분 반영된 현재 주가에서는 비중 확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19,589	23,141	25,792	26,967
증감률	31.1	18.1	11.5	4.6
영업이익	1,272	1,002	1,268	1,331
증감률	0.6	-21.2	26.6	5.0
영업이익률	6.5	4.3	4.9	4.9
(지배지분)순이익	980	635	770	810
EPS	41,401	26,817	32,531	34,239
증감률	10.3	-35.2	21.3	5.3
PER	6.1	9.9	8.1	7.7
PBR	1.4	1.3	1.1	1.0
EV/EBITDA	3.4	4.1	3.6	3.6
ROE	25.9	14.0	15.0	13.9
부채비율	129.6	127.2	121.0	113.7
순차입금	1,435	1,588	1,744	2,145

단위: 십억원, %, 원, 배



